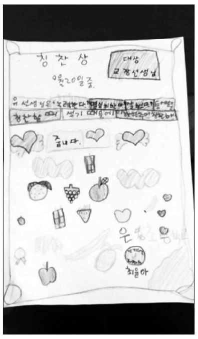
재미있고 값진 상장

인천은봉초, 학생들이 학교장에 상장 전달



어린 학생으로부터 학교장이 상장을 받고 흐뭇해하는 아름다운 미담이 있어 화재가 되고 있다.

'학교 교실이 무너졌다.' '학생과 교사 간의 신뢰가 바닥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는 등 학교문화가 일대 혁신이 필요한 요즘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미담이다.

인천은봉초등학교(송차범 교장)가 주인공이다.

추석 한가위 명절 연휴가 끝난 지난 9월 20일 학교에서 학생에게 주는 상이 아니라 거꾸로 학교장이 고학년이 아닌 저학년인 어린 1학년과 2학년 학생으로부터 칭찬 상을 받는 보기 드문 일이 일어났다.

이번 상을 계기로 인천은봉초는 아름다운 이야기꽃이 피어나고 있다.

평소에 학생들은 "교장 선생님이 평소 웃는 모습으로 사랑해주시고, 즐거운 학교생활이 되도록 마음으로 도와주시는 것에 감사해 하며, 교장 선생님을 기쁘게 해드릴 일을 찾던 중 교장 선생님께 칭찬상을 드리기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모아 상을 드리기로 했다고 한다.

칭찬상의 주인공인 송차범 교장은 "1976년 교직에 첫발을 들어 놓은 지 40년이 넘는 긴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교사, 교감, 교장의 직을 수행하는 동안 교직에서 겪은 인생과정이 셀 수 없이 다양하고, 만족과 실망의 순간이 주마등처럼 영화관의 활동사진을 돌려 보는 듯한데, 오늘은 나의 교직 생활 중 가장 기쁘고 의미 있는 날 중의 하루가 됐다."고 말하며 아이와 같은 천진난만한 환한 웃음을 지으면서, "남은 교직 생활은 우리 귀염둥이들을 위해 뜻있는 교육활동을 펼침으로써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교육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는 다짐을 가슴 깊이 새겼다.

안용섭 기자 ays@

포기하지 않는 삶이 좋다

인천시교육청, 제3회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연합 체육대회

인천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연합회(7기관)는 2016년 9월 29일 계양체육관 주경기장에서 연합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제3회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어울림 한마당'은 경쟁과 대결이 아닌 화합과 어울림을 통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추억을 만들어 주어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신선한 자극제가 되도록 기획된 것이다.

이청연교육감은 개회사에서 "천천히 가지만 늦은 것이 아니고,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성공한 사람으로 링컨과 김득신을 소개하며 학생들에게 목표를 향해 전진하기"를 당부했다.

또, "경쟁보다는 즐거운 협동의 시간이 되어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오프닝 게임과 응원전이 있었으며, 주경기로는 공룡알게임, 볼바운딩 등 협동놀이 8가지가 펼쳐졌고, 다함께 참여하는 어울마당으로 끝을 맺었다. 체육행사에는 제17사단 군악대가 참여하여 신나는 연주와 절도 있는 모습으로 학생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또 세림병원에서는 의료진과 구급차를 지원하였고, 계양경찰서에서는 경찰관들이 질서유지를 도와 온동네가 함께 하는 훈훈한 행사가 되었다.

사랑의비전학교 장순홍 교장은 "이 행사를 주관하며 학생들에게 밝게 웃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 기쁘다며, 지난해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을 보니 뿌듯하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현재 7개의 장기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기관을 통해 학생들이 경쟁보다는 즐거운 협동이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고 각자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부교육지원청, 학부모와 행복·공감 소통의 장 열어

인천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정환)은 올해 상반기 학부모와 교육감과의 행복·공감 토크로 형성된 토론 문화를 확산하고자 운영했던 2016년 학부모와 북부교육지원청이 함께 하는 행복·공감 토크가 9월 29일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행복·공감 토크는 학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대한 의견을 소관 부서에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소통의 장이 되었다. 지난 9월 1일 '행복한 돌봄교실 운영방안'을 시작으로 각 부서에서 교육전반에 걸친 주제를 갖고 관심있는 학부모와 열띤 토크가 이루어졌다.

어휘력이 학습 능력을 좌우한다

갈산중 '나는야 한자왕, 글로벌 영어왕' 겨루기 대회 실시

갈산중학교(교장 김성수)는 학습 능력 신장을 위한 기초능력의 발판은 어휘력에 있다고 판단해 학기 초부터 꾸준하게 한자와 영어 단어 익히기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내 마음의 아침밥'이라는 책자를 제작하고 자습 시간을 활용해 책자에 나와 있는 한자 어휘와 성어들을 중심으로 더욱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해서 학습의 효율성을 높였다. 작년에는 희망자를 신청받았으나 올해에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9월 27일 창의 체험의 날에 '나는야 한자왕 대회'를 실시했다.

'나는 한자왕 대회'는 총 70문항으로 한자능력시험 및 급수 문제 유형으로 출제했다. 학생들은 생활 한자어와 한자성어와 관련한 어휘력 및 독해능력을 겨루고 그동안 갈고 닦은 기초와 심화 한자에 대한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진지한 태도로 마음껏 발휘했다.

또한, 9월 26일 방과 후에 실시한 '글로벌 영어왕' 대회는 영어에 관심이 많고 꾸준히 실력을 쌓은 학생 중 희망자를 받아 1학년 53명, 2학년 35명, 3학년 31명 총 119명이 참가해 선의의 경쟁과 열띤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다. 이 대회는 TOEIC BRIDGE 형태로 듣기와 독해 모두를 평가했다.

김성수 교장은 "갈산중학교는 이러한 자리를 통해 학생들에게 어휘력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하고 한자 및 영어 학습에 흥미를 느끼며 동기 부여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실시 소감을 밝혔다.

안용섭 기자 ays@

21세기 인재 양성 '창의·인성' 교육

상인천중, 교육 공동체의 날 운영

상인천중학교(교장 김홍근)는 9월 29일 '교육 공동체의 날'로 지정하고 학부모를 학교에 초청해 학교의 교육활동을 안내하고 전 교사의 수업을 공개하며 자녀 교육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5월과 마찬가지로 이번 교육공동체의 날 행사에도 많은 학부모가 참여해 학교와 자녀 교육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학부모들은 6, 7교시에 자유롭게 교실을 다니시면서 다양한 교과목을 융합해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을 키우는 창의 인성 수업을 참관했다.

특히, 올해부터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됐기 때문에 1학년의 학부모들은 공개 수업에 큰 관심을 보였다.

참여한 1학년의 한 학부모는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의 주제들이 흥미로웠다. 어떤 내용으로 수업이 이뤄지는지 너무 궁금했었는데,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활발하게 토의하고 활동하고 결과물을 만들어가는 수업의 과정이 매우 재미있었다. 또한, 수업내용도 교과와 진로와 연계된 프로그램이기에 만족스러웠다. 자유학기제가 학생들의 꿈과 끼를 마음껏 발산하고 찾아가는 수업이라는 것에 대한 신뢰가 생겼다"라고 참여 소감을 말했다.

김홍근 교장은 "21세기 정보화 사회는 창의력, 문제해결능력, 비판적 사고력을 지닌 인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춰 상인천중은 미래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STEAM(교과융합인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 교사와 학생이 함께 노력해 지속해서 좋은 교육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안용섭 기자 ays@

"나누는 기쁨, 행복한 세상"

신현중, 사랑나눔 봉사활동

신현중학교(교장 이석봉)는 9월 24일 '사랑나눔 연합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하나로 진행된 이번 사업은 신현중학교, 신현여자중학교, 인천가현중학교 연합으로 봉사활동단을 구성해 인천신생요양원을 방문해 진행됐다.

참가 학생들은 평소 동아리 활동을 하며 갈고 닦은 재능(마술공연, 발마사지, 머리핀 만들기, 쿠키 나눔)들을 펼쳐 보임으로써 보람되고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참가한 이모 학생은 "처음에는 실수할까 봐 부담이 됐지만 직접 해보니 뿌듯함을 느꼈다. 어르신들과 친해질 수 있었고 산책을 함께하고, 또 노래를 불러드리며 시간을 함께함으로써 편견이 심한 나도 바꿀 수 있었다. 먼저 손을 잡아주시기도 하고 우신 분도 계셔서 봉사활동에 더욱 관심 두고 열심히 해야겠다"면서 "만남의 시간이 비록 3~4시간 정도였지만 추억은 몇 배로 얻어 간 것 같아 기분 좋은 하루였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봉사활동 실천은 학생들의 봉사와 나눔 의식 함양과 더불어 긍정적인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데 밑거름이 되는 계기가 됐다.

안용섭 기자 ays@

강화교육지원청, 2016 초등 독서논술캠프 개최

인천시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전태일)은 9월 29일 '2016 초등 독서논술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강화교육지원청 주최, 강화 초등 독서교육연구회 주관으로 관내 초등학생 40여명과 초등학교 선생님 20여명이 참가하여 진행했다.

'2016 초등 독서논술캠프'는 학생들이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선정된 도서를 읽고 독서논술캠프에 참여하여, 독서 골든벨과 6개의 독서논술캠프 체험부스에서 다양한 독후 활동을 했다. 독서논술캠프 체험부스는 입체북 만들기, 등장인물 캐릭터 그리기, 사행시 짓기, 그림글자 디자인하기, 책 소개하기, 소감문 작성하기를 실시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만든 독서논술캠프 체험부스 활동결과물을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은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교육활동을 기반으로, 소통과 나눔 활동을 통해 경청과 배려, 의사소통능력 등 미래핵심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초등 독서논술캠프에 참가한 독서교육연구회 난정초 임연수 교사는 "학생과 학생들이, 교사와 학생이 책을 읽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매우 즐거웠다"며 참가 소감을 밝혔다.